



나무솔개의 둥지 송광사, 무량한 시간속의 예불



그 옛날 지붕 스님이 날려 보냈던 나무솔개는 어디에 있을까. 조계산 숲에 등지처럼 들어 앉은 송광사를 찾았다.

이슬비가 내린다.
 비에 젖은 전각의 기와가 햇살처럼 반짝거리고,
 곳곳에 산문의 경계를 서고 있는 일주문 곁에는 하얀 수국이 모래시계처럼 꽃잎을 떨어뜨리고 있다.

설화에 의하면 지붕 스님이 정혜결사(定慧結社)를 옮길 터를 찾기 위해 날려 보낸 나무솔개가가 곳 송광사 국사전 뒤뜰에 내려앉았다고 한다.
 새로워지려는 몸짓으로 충만했던 시절을 기념하며 오늘의 도량을 걷는다.

멀리 하안거에 든 수선사가 보인다. 스님 한 분이 마당을 쓸고 있다. 쉬는 시간이다.
 치열했던 시간이 비질 뒤로 쌓이고 스님의 시선은 비질 끝을 따라간다. 열렸던 문이 다시 닫히고 숲에서 산새 한 마리가 날아오른다.

어제처럼 또 하루가 저물고 대웅보전에는 대웅이 모두 모였다. 저녁예불이다.
 부처님의 따뜻한 시선 아래 무릎 꿇은 대웅이 '지심귀명례(至心歸命禮)'를 올린다.
 설화 속의 나무솔개는 지금도 이야기 속에 남아 있고, 그 설화 속의 송광사에서는 지금 저녁예불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지금'은 무량한 시간 그 자체다.

순천 송광사=글/사진 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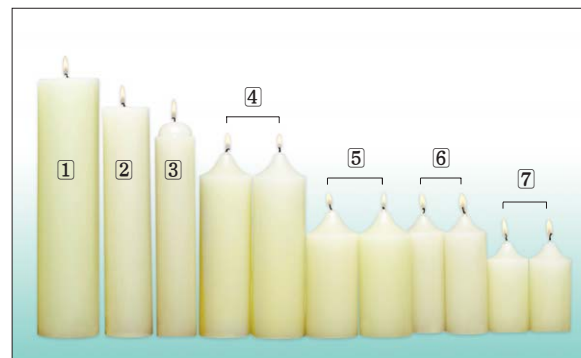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 선물세트
- 2 밀납초금강경(7개入) 선물세트
- 3 밀납초원기둥 7.4φ × 30Cm
- 4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 5 밀납초 1호 반아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6 밀납초 1호 금강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7 밀납초 3호 반아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이상
- 8 밀납초 4호 반아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 약쑥향 양초

- 1 원기둥 7.4φCm × 29Cm
- 2 돈타레 5.6φCm × 27Cm
- 3 밀 대 4.7φCm × 25Cm
- 4 1호 5.9φCm × 20Cm
- 5 2호 5.9φCm × 14Cm
- 6 3호 4.7φCm × 13Cm
- 7 4호 4.7φ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φ X 35cm
- 야광 양초 70φ X 35cm
- 원기둥 마패 7.4φ X 30cm
- 등신불 마패 4.7φ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창 양초.net